

##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로마서 3:23

정윤돈 목사님

### 서론

오늘부터 복음편지 10과의 말씀을 나누겠다. 오늘은 복음편지 1과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말씀이다. 현장에 가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예비된 분들이 있다.

- (1) 갈급한 자,
- (2) 충성된 자,
- (3) 사망자.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복음편지는 1989년 수요일예배 때, 성도들이 현장에서 전도가 어렵다고 하니, 복사해서 쓰도록 해서 만든 것이다. 저자 직장으로 해서 중간중간 메시지로도 나왔다. 사실 우리 전도운동의 시작과 끝이 이 10과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장에 가서 체험을 하게 되면 어렵지 않고, 이게 그래서 정말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여기에 많이 담겨 있다. 여러분이 주의할 점은, 다락방을 계속 하셨는데, 그 다락방이 지속이 되던가? 지교회화 지속이 되던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왜 그런가 하면, 다락방에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가기 때문이다. 또,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 다락방, 지교회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내게 말씀이 성취된 것을 증거하러 가는 것이다. 그래서 증인이 되는 것이다. 강단 메시지, 세계복음회의 메시지, 내 마음에 부딪혔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다고 말해주는 곳이 바로 다락방이고, 지교회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전도운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어려운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거기에서 장사를 한다든가, 말을 너무 많이 한다든가 하면 안 된다. 처음에는 많이 들어주는 게 더 좋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제목이 무엇입니까? 성경공부는 왜 하게 되었습니까? 교회는 왜 다니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집안은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다 말을 해 준다. 다 들어주고 나면, 거기에 답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다 있다. 어떤 사람은 가위눌림, 어떤 사람은 우울증, 어떤 사람은 악몽,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 어떤 사람은 무당을 했던 문제, 입장이 다르다. 다락방 현장은 거기에 답을 주는 것이다. 복음으로 답을 주고 결론을 내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을 지속하고 양육하는 현장이 지교회화 미션 홈이다. 그것을 잘 들어주는 사역이 팀 사역이다. 전문분야가 모여서 전문 사역을 하게 되는 것까지 하면 다섯 기초가 된다. 그것은 계획을 해서 하는 게 아니다. 복음 따라, 말씀 따라 가면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현장에 가면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망자를 만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초대교회 교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전략을 가지고 합시다! 처음에 다락방하고 팀 사역하고 전문사역하고 합시다!' 해서 된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누리고, 그 복음의 필요성을 알고,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답을 주면,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하면 막연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다. 지난주에는 C국에 강의를 다녀 왔는데, 핏박이 심한데도 더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분들과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대화를 해 봤는데, 완전히 예비된 분들이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잡한 설명이 필요가 없다.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다. 어떤 분은 귀신을 계속 보면서 고통을 당하다가 복음을 받았다. 귀신들린 사람은 정말 행복이 없다. 귀신을 보고, 악몽을 꾸고, 불면증에 시달리면 행복이 없다. 하버드대학에는 행복론을 강의하는 교수가 있는데, 왜 행복론 강의를 하게 되었느냐 했더니, 자기가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행복하지 않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행복론 강의를 해 보니까 자기와 똑같은 학생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분의 말 중의 하나가, '우리가 행복하려면 충분히 잠을 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불면증 있는 사람은 잠을 못 자니까 행복할 수가 없다.

그중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본다. 집중을 못 한다. 충분히 못 자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다 불행한가? 그렇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전도자다.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이분이 이렇게 망하고, 재앙, 운명 사주팔자로 고통당했다는 것은 복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다. 불면증도, 귀신 보는 것도 마찬가지다. 예비된 사람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신다. 우리는 그 사람을 찾은 것이다. '행복해요,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돼요, 하나님 같은 것 안 믿어도 돼요, 응답 잘 받고 있어요' 하는 사람들은 아직 때가 안 된 것이다. 복을 받을 갑급할 때가 올 것이니까, 그때까지는 그렇게 살라고 하자. 우리의 대상자는 이 고통 중에 있고, 큰 의문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하버드에도 있고, 엘리트 속에도 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에게 붙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으로 답을 얻게 하실 것이다. 어떤 분은 산후우울증으로 고생하는데 사실은 시달렸던 것이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니 지금까지 보였던 귀신이 없어져 버렸다. 영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분이 스스로 이야기했다. 문제는 그 아이들에게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영접했더니 똑같이 귀신이 떠나가 버렸다. 이 자리에서 과거에 귀신을 보거나 악몽을 꾸거나 가위눌림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 (웃음) 두 사람이 아주 빨리 손을 들었다. (웃음) 자살예방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학교 현장에 가서 설문조사를 해 본다. 그러면 초중고생 중에 자살을 생각하거나 악몽을 꾸거나 귀신을 보거나 하는 사람이 거의 절반이 된다. 가문, 가정에 이상승배가 심각한 아이들, 그래서 밖에서 비행청소년이 되어 있는 아이들은 80, 90%가 이런 것에 시달리고 있다. 누가 여기에 답을 주겠는가. 학교 선생님은 못 하는 일이다. 이 아이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복음을 전해줘야 한다. 다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이상승배가 심각했다가 복음을 받은 사람은 빨리 은혜를 받는다. 그런데 빨리 또 낙심한다.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는 것이 있다. 이상한 것들이 자꾸 생긴다. 메시지도 붙잡고 은혜도 받는데 절망도 빠르다. 불신앙으로 자꾸 돌아간다. 그러면서 자학을 한다. 그래서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래도 감사하지 않다. 문제가 많으니까 계속 붙잡게 되는 것이다. 별로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티가 안 나서 별로 3오늘 안 하고 메시지 안 붙잡아도 살만 하니 그렇게 산다. 그러면 누가 더 복된 사람인가? 문제없는 사람들도, 갈등 있는 사람들도 스스로 감사할 줄 알고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문제 없다고 나타하거나, 문제 있다고 낙심하면 안 된다.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이 메시지가 부딪혀야 한다.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그것을 배우고 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시간나면 메시지를 들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게 되었고, 기도하면 깨닫게 되고, 문제 오면 발판 삼으면 되니까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의 상태를 잘 몰랐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된 것이다.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정말 답이 없었을 것 같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갈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답답했을 것 같다. 나는 그래서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도 예수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 아니, 괜히 머리 밀고 다니는 게 안 맞지 않다. 괜히 평생 똑같은 우중충한 옷 입고 다니면서 고기 안 먹는 게 안 맞지 않다. 다 틀린 것이다.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는 것이 맞지, 교만하게 자기 주먹을 믿는다 하고 자기 실력을 믿는다는 것은 안 맞지 않다. 방위 때 독서토론회가 있어서 가 봤는데, 서울법대를 다니는 사람들이었다. 거기에 3주 정도 참여해 보니까 답이 나왔다. "야, 더 책 읽어봐야 소용없다. 이런 것 그만두고 어려운 아이들 도와주러 가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고아원 아이들을 가르치도록 만들어주었다. 여기에서 비로소 다들 보람을 찾았다. 서울법대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대단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우리가 지식이 있다 해 봐야 얼마나 있겠는가.

행복해야 될 사람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이는 가정문제, 건강문제, 경제문제, 정신문제 등으로 고난당하고 있다. 행복이 없어 술을 마시고, 도박이나 춤에 빠지며, 방종을 해 보기도 하나 결국은 더 불행해진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 1.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 (1)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다. 요10:10에, 모든 종교는 도둑질을 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만 봐도 그렇지 않나? 어느 대통령을 세운다고 해결되겠는가. 진리가 없고 힘이 없으면 도둑놈인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
- (2) 그래서 죄에 빠지게 되었고, 의인이 하나도 없게 된 것이다.
- (3) 더 심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 ① 정신적인 고통이 온다. 악령에 시달리고 가위눌리는 청년을 만났는데, 가위눌리니까 잠을 잘 수 없고, 잠을 못 자니까 자꾸 지각하고, 직장생활을 못 하게 되고, 죽고 싶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복음 전해서 그분이 나왔다면 전도의 큰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어떤 분이 와서 복음 전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서 전도하는데, 문을 걸어잠그고 밖으로 나오지를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차피 열 번은 약속했으니까 간 것이다. 가서 밖에서 들든 말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복음으로 답을 줬더니, 다섯 번 만에 비로소 문을 열고 나와서 복음을 받았다고 한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이 아파트 지역에 예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이다. 이게 될 때까지 준비하는 것이 3오늘이다.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은혜받고 공감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문이 열릴 것이다.
- ② 보람, 균형 없는 생활을 한다.
- ③ 육신의 병에 시달린다. 질병이 그리스도 결혼 날 기회가 되면 그게 축복이다.
- ④ 영적인 원인이 있는데, 원인을 모르고 거기 빠져서 고통 중에 있는 것이다. 오직 복음 전할 때만 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란다. 우리는 이 답을 주는 것이다.

### 2. 이 문제가 언제부터 오게 되었는가?

- (1) 아담 때부터다.
- (2)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버렸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침착을 하면 안 된다. 말씀 그대로, 성경 그대로 해야 한다. 목사님의 설교에는 잘못된 정보가 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 성경의 주제, 하나님의 진짜 천명이 있지 않나. 나머지는 지나가는 것이고,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붙잡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된다.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 (3) 그 결과 인간은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 3. 이 불행은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 (1)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여러분이 그러하다면,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시기 바란다. 문제, 환난은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다. 예수 믿고 문제 없어지는가? 더 커질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의 능력과 힘이 커지면 문제가 커져도 그게 문제가 아니게 된다. 사업이 커지면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많아진다. 그러나 조직이 커지고 능력이 커지니까 그게 해결되는 것이다. 사업이 커지려면 문제도 많아야 한다. 그러면서 도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큰 응답을 받으시기 바란다.
- (2) 계속 증가된다.
- (3)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더 심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성경의 흐름, 복음의 흐름을 붙잡아야 한다. 그러면 모든 설교, 모든 예배가 답이 된다. 현장의 모든 부분에 대한 답이 된다.

### 4. 왜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가? 왜 사라지지 않는가?

- (1) 불행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있다.
- (2) 그게 사단, 마귀, 귀신이다. 평생 이것 보는 사람은 금방 알아듣는다.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계속 우상을 섬겼던 것이다.
- (3) 언제 나타났는가?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였다. 공중의 권세를 잡고 지구에 출현해서 인간을 망하게 한다. 지옥에 결국 가게 되지만, 그때까지 계속 난리를 친다.

### 5.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불신자 상태다.

- (1) 영적인 문제가 온다.
- (2) 고통이 온다. 원인 모르고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행복이 없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 없다. 엘리트니까. 공허하고 허전한테 말을 못 한다.
- (3) 마음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없다. 하나님이 주신 살림을 경험한 적이 없다. 잠을 못 자는 사람이 나에게 질문을 해 왔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되게 똑똑한 분이였다. 이분에게 대답해 주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평안이 없다. 주님께 맡겨 버려라. 내일 일을 당겨서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 버려야 한다.” 삼일 후에 만났는데 진짜 해결되었다는 것이다. 주님께 맡겨 버려라. 항상 긴장하고 있으면 결국 실수하게 된다. 진정한 평안 속에서 하지 않으면 실수한다. 방어기제로 간다. 모든 태도가 그렇게 나온다. 대화를 평안하게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참된 평안, 살림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한다.
- (4) 육신에 문제가 온다. 늘 아프고 피곤하고.
- (5)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한다.
- (6)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에 간다.
- (7) 후대에게까지 어려움을 주는 것이다.

### 6.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김찰청에 들어기려고 하면 공부를 잘 해야 한다. 대단히 훌륭하지 않나? 그런 김사들이 술을 퍼 마신다. 날마다 돌아가면서 술을 마신다. 행복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 (1) 세상 것이고,
- (2) 육신적인 것이고,
- (3) 쾌락적인 것이다.
- (4) 그런데 더 큰 불행을 가져다 준다. 마약도 하고 술도 마시고 놀아도 보는데 안 된다. 여러분, 즐겁게 살면 안 된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림을 주신다. 여행도 해 보라. 이런저런 것을 가지고 즐겨 보라. 그러나 하나님 떠나서 하면 다 재앙과 저주가 된다. 해도 행복하지 않다. 결국은 더 불행해진다. 이 결론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왜 불행한가? 돈 때문인가? 건강 때문인가? 돈이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나? 건강해지면 행복해지겠는가? 문제 해결된다고 행복해지겠는가? 아니다. 무엇 때문에 불행한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문제가 온 것인데,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불행한 것이다. 답을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명문대학에 가면 행복하겠는가? 여러분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행복하겠는가? 참사다. 그리스도로 결론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 정말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을 때 진정으로 성공하게 된다. 하나님의 소원에만 초점을 맞추면 다 되게 되어 있다. 다른 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되게 하신다. 집중을 거기에 해야 한다.

### 결론

- (1)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21가지 전도자의 삶이다. 하나하나 요절 말씀을 붙잡고 하라. 갈보리산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21가지는 다 중요하다. 그것이 하나다. 말씀 속에서 붙잡아야 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길이 갈보리산에서 열려지게 된 것이다. 21가지를 요절과 연결시켜서 나의 것으로 응답을 받으라. 저거 다 외우려면 힘들다 하지 말고, 한 가지를 언약으로 붙잡고 있으면, 21가지가 210가지가 되어도 축복이 될 것이다. (웃음)
- (2) 그러면서 8미션이 무엇인가? 말씀의 흐름, 언약의 흐름을 붙잡아야 한다.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흐름이다. 이 흐름을 타고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찾아서 제자로 세워야 한다. 그래서 참된 전도자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